

## 21세기 인종질서 속 동양인들의 위치 - 클레어 진 김의 『반흑인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의 비교인종연구\*

이윤중\*\*

1. 들어가며: 코로나 19와 유색인종
2. 흑백구도 사이의 중간 소수자로서의 동양인?
3. 반흑 인종주의의 역사: 흑인과 대비되는 동양인의 위치
  - 3-1. 중국인의 미국 이주와 흑인 야만인 담론
  - 3-2. 일본인의 미국 이주와 일본 제국주의 및 흑인 좌파운동
  - 3-3. 동양계 미국인의 민권운동과 반흑인주의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는 클레어 진 김의 2023년 신간, 『반흑인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Asian-Americans in Anti-Black World)을 상세히 독해하며 21세기의 인종질서 속에서 동양인들이 점하는 위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김은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 내에서 보다 극심해진 반흑인 인종주의가 미국과 전세계 인종질서 속에서 동양인의 위치성과 맺는 상대적 관계성에 대해 논한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 감염병으로 동양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폭증했다는 많은 보도가 있기는 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NRF-2021S1A5C2A02088731)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지만 실제로 목숨을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동양인은 드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17세기 초에 노예제와 함께 시작되어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반흑인 인종주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많은 흑인들의 민권과 생명을 앗아갔다. 따라서 킴은 미국내 인종질서 속에서 동양인이 흑인에 대해 점하고 있는 비교 우위의 위치성은 백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러한 위치성은 백인과 흑인과의 위치성 비교와 상대적 관계성을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내에서 동양인들이 백인만큼은 아니더라도 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누릴 수 있는 이권들은 검은 피부를 지니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킴은 자신의 신간에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의 미국 이주사를 각종 사료 및 법정 자료, 문화예술 자료 등을 통해 되돌아보며, 이를 흑인 및 백인과의 비교 인종연구 속에서, 특히 반흑인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대하고 철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수행된 킴의 논의와 논지를 세세하게 독해하며 이를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동아시아에서의 인종화 현상과 연관시켜 어떻게 수용하고 논의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주제어: 클레어 진 킴, 반흑인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 인종주의, 인종질서, 흑인, 반흑인주의, 동양인, 혐오/증오 범죄, 비교우위, 비교인종연구)

## 1. 들어가며: 코로나 19와 유색인종

한국계 미국인 정치학자인 클레어 진 킴(이하 클레어 킴)은 2023년 9월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한 그녀의 세 번째 저서 『반흑인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Asian Americans in an Anti-Black World*)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하여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이 접하는 상대적 인종성에 대해 비교인종연구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sup>1)</sup>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19년과 2020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병을 ‘중국 독감’ 혹은 ‘콩 플루’ 등으로 부르며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주의를 조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몇몇 동양계 미국인들이 거리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해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킴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가장 큰 생명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실제로 경험한 인종은 동양인이 아닌 흑인이라 단언한다. 같은 유색인종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가장 극심한 인종혐오와 인종주의의 대상이 되는 흑인과 대비하여 동아시아 출신의 동양인들이 접하는 상대적 비교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양인들은 주로 화이트칼라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적으로도 전염의 위험이 높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트럼프주의에 선동된 인종주의에 의해 거리에서 실제로 치명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도 없었다. 킴은 미국 내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동양인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극심해져 가는 반흑인 인종주의(anti-Black racism)에 가담하여 그것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는다. 그러면서 그녀는 동양계 미국인의 인종적 위치성에 대한 고찰이 흑인 및 백인과의 비교

1) 클레어 진 킴의 책에서 지칭하는 Asian American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번역하지 않고 로마자 그대로 ‘아시안 아메리칸’이라 하거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 번역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럴 경우 한국의 맥락에서 ‘아시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다. 아시아는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를 비롯,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파키스탄 등을 지칭하는 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 대륙에 속하는 지역인 서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인종 구분 맥락에서 ‘아시아인’은 보통 우리가 ‘동양인’이라 지칭하는 동(북)아시아인, 즉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뜻한다. 그 외 아시아인들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남아시아인, 동남아시아인, 서남아시아인 등으로 지칭된다. 책 속에서 킴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Asian American도 한국, 중국,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미국인들을 뜻하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동양계 미국인’으로 번역하기로 했음을 밝힌다.

연구와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며 이를 수행한다.

따라서 본고는 김의 신간을 중심으로 그녀가 이전부터 수행해 온 비교 인종연구를 국내에 소개하며 미국 내 동양인 뿐 아니라 전지구적 인종질서 속에서 동양인이 차지하는 인종적 위치성에 대해 고구해 보고자 한다. 김은 첫 번째 저서인 『씹쓸한 과실: 뉴욕시 한흑갈등의 정치』(*Bitter Fruit: The Politics of Black-Korean Conflict in New York City*, 2000, 이하 『씹쓸한 과실』)를 통해 흑백구도 혹은 흑백갈등으로만 축소되어 진행되었던 기존의 인종담론을 확장시키며 동양인, 특히 한국계 미국인의 인종성을 흑인과의 비교연구 속에서 재담론화한 바 있다. 또한 두 번째 저서인 『위험한 횡단들: 다문화 시대의 인종, 생물 종, 그리고 자연』(*Dangerous Crossings: Race, Species, and Nature in a Multicultural Age*, 2017, 이하 『위험한 횡단들』)을 통해서도 인종뿐 아니라 인종별로 동물 종이냐 식물 종 등 타 생물종과 맺는 관계성이 달라지지만 이에 대해 인종주의적 논리가 적용되는 사례들에 대해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비교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고찰해 온 바 있다. 김의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흔히 황인으로 분류되는 동양인을, 백인과 흑인 사이의 중간자(middleman)로만 인식하거나,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으로서 백인으로부터 똑같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피해자로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기존 인종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동양인을 흑백인종 사이의 중간자로 보는 경우 인종 문제를 영원히 흑백구도로만 고착시키는 오류에 빠질 수 있고, 흑인과 똑같은 유색인종으로 보는 경우 미국 뿐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만연한 반흑인 정서는 물론이고 동양인이 흑인에게 행하는 인종주의적 언행과 사유체제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선 동양인을 흑인과 백인의 중간자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반흑인 인종주의의 역사를 동양인이

처해온 인종주의의 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동양인이 흑인과의 비교우위를 통해 선취한 이권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다.

인종주의와 대량학살로 점철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여권운동과 흑인 민권운동, 반전운동 등의 급부상으로 인해, 20세기 후반에는 인종적·젠더적 편견은 곧 사라질 것만 같은 기대감이 충만했던 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911 테러와 함께 시작된 21세기는 중동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전세계에 각인시켰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의 8년 연임기간 동안 흑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는 역설적으로 보다 극심해지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2000년대와 2010년대 전환기부터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흑인 남성에게 대한 뉴스 보도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반흑인 감정과 증오범죄는 보다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이는, 비슷하면 서도 다른 맥락에서,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급속한 실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 보다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여성혐오와 더불어 급증해 온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현상과도 비교해 재문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트럼프 전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확산된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는 코로나 기간 동안 동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며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흑인에 대한 뿌리깊은 인종주의는 다시 새롭게 부활하여 확대재생산되었다.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왔던 흑인들은 범죄와 연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코로나 기간인 2020년 5월 25일 식료품점에서 위조지폐를 지불한 것으로 오인받은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질식사하면서 촉발된 Black Lives Matter 운동은 플로이드가 죽기 직전 남긴 “I can’t

breathe”라는 말과 맞물려 많은 하층의 흑인들이 처한 생명의 위협과도 직결되어 있다. 플로이드도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일용직이나 공장근무를 하는 흑인들은 생계와 더불어 생명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흑인 노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가장 왕성할 당시에도 자택근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해 목숨을 걸고 출근을 하거나 생계 수단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분석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 목숨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하는 등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인종이 흑인이고, 동양인들은 백인들보다도 덜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즉, 미국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아시아인들 중에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6%지만, 미국인의 12.4%를 차지하는 흑인은 전체 사망자의 14.9%를 차지한다고 한다.<sup>2)</sup>

따라서 김은 동양계 미국인의 미국 내 인종질서 상의 위치성은 백인성과 흑인성과의 비교연구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특히 흑인성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흑인을 적대시하는 반흑인 인종주의와의 비교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동양인은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절대우위에 있지 않지만,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흑인도 아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인종적 상대우위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거나 화이트칼라 직업을 얻거나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즉, 동양계 미국인은 미국의 상대적 인종역학 속에서 “비백인이지만 무엇보다도 비흑인으로 여겨지”며 “흑인이기보다는 동양인인 편이 낫다(Better Asians than

2) Claire Jean Kim, *Asian Americans in an Anti-Black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pp.3-4. 이하 본문에서 쪽수만 표시.

Blacks)”는 인식 속에서 “백인과 흑인의 양극단에 속하지 않는 위치(the lesser of two evils)”를 점하며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융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p.10) 이러한 상대성과 비교우위의 관계성 속에서 『반흑인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미국 내 중국인 이민자들로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일본계와 한국계 미국인의 이주사를 방대하게 아우른다. 김은 학술서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문과 판례집 및 사진과 영화 등 문화예술 자료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문헌 자료들을 통해 반흑인 인종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동양계 미국인의 이주사와 함께 되돌아본다. 이를 통해 반흑인주의가 초창기에는 천대받는 위치였던 동양계 미국인이 점했던 위치를 상향조정하는 데에 일조해 왔음을 밝힌다. 3장에서는 김이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수행한 반흑인주의의 역사와 대비되는 동양계 미국인의 이주사 연구를 빌어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위계화된 인종질서 속에서 동양인이 차지하는 인종적 위상에 대해 김의 이전 논의들과 함께 들여다볼 것이다. 이를 통해 백인이 점하는 절대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흑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얻어지는 동양인들의 비교우위와 더불어, 반흑인주의에 가담하며 증오범죄를 부추기거나 행하는 동양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재고찰할 것이다.

## 2. 흑백구도 사이의 중간 소수자로서의 동양인?

클레어 김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과 저서에서 동양계 미국인들이 백인과 흑인 사이의 중간에 끼어 있는 중간자(middleman)라 규정되는 기존의 이차원적 평면구도의 인종관에서 벗어나, 삼차원화되고 삼각화된 관계로

인종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의 이러한 삼차원화되고 삼각화된 인종이론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선 기존의 중간자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학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에게 대한 인종담론은 이들을 흑백구도의 중간지대를 점유하는 ‘중간적 소수자(middleman minority)’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민병갑이나 박계영 등 한인 이주민에 대해 연구하는 재미 학자들도 이러한 담론을 따라 1세대 한국계 이민자들을 백인과 흑인 사이의 중간자(middleman)로 보았고, 이들이 이룩한 경제적 성취를 시기질투한 흑인들에 의해 1980년대 말부터 한흑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sup>3)</sup>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1세대 한인 이주민들이 대부분 자영업이나 소상공업 등 중간 업종에 종사하며 백인과 흑인 고객을 상대로 경제적 성취를 이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아 신분 상승을 이룩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게 되자 1960년대부터 ‘모범 소수민족(model minority)’으로 우대받기 시작한 일본계 미국인들과 더불어 한국계 미국인들도 1980년대부터 그렇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미국의 소수 민족학(ethnic studies) 연구자라 칭하는 장태한 교수는 중간적 소수자 담론이 “유럽의 유대인들, 동남아시아의 중국인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인도인들의 경험을 적용하여 성립된 이론”으로 이 소수민족들이 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도 프롤레타리아도 아닌 프티 부르주아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한다.<sup>4)</sup> 그러나 중간적 소수자 담론은 흑인과 백

3) 다음을 참조할 것. Pyoung Gap Min,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Kyeyoung Park, *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4) 장태한, 『미국의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109-110쪽.



인만을 인종담론의 중심에 두고 비흑인이자 비백인인 사람들을 흑백구도의 중간에 몰아넣으며 흑백구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인종질서는 자연스럽게 흑백관계로 축소된다.

클레어 김은 이처럼 흑백구도로 양극화된 인종담론을 지양하며 ‘삼각화된(triangulated)’ 인종적 위치성을 제안한 바 있다. 동양계 미국인들은 백인과 흑인간의 수직관계에서 중간지대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직선에서 튕겨져나온 점의 위치를 차지하며 삼각화된 인종관계 속 삼각형의 한쪽 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양인들이 백인지배사회에서 모범 소수민족으로서 흑인보다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제(ostracization)” 속에서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sup>5)</sup> 이러한 “인종적 삼각화(racial triangulation)”는 동양인이 미국의 ‘인종 질서(racial ordering)’ 속에서 백인 및 흑인과 비교되는 끊임없는 “상대 평가(relative valorization)”를 받으며 백인의 지배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데에 유리하도록 사회적 위치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6)</sup> 따라서 김은 19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이주하기 시작한 한인들이 흑백간의 수직관계 하에서 백인 지배에 의해 주변화되며 물질적, 상징적 자원을 결여한 흑인들을 대신하여 흑인 거주 지역에 자신들의 교육자본과 인맥, 자금을 바탕으로 작은 상점들을 열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인과 흑인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sup>7)</sup> 한인들은 한인 인구가 밀집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같은 대도시에서 자신들의 인맥과 자원을 이용

5) Claire Jean Kim, “The Racial Triangulation of Asian Americans,” *Politics & Society*, Vol. 27, No. 1 (Mar 1999), pp.105-138, p.107.

6) Claire Jean Kim, *Bitter Fruit: The Politics of Black-Korean Conflict in New York C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16.

7) Ibid., pp.43-45.

해 주로 흑인 거주지에서 상점을 운영하다 1980년대부터 흑인들로부터 불매운동의 타겟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은 『쏟아진 과실』에서 이러한 불매운동이 한흑갈등보다는 “인종적 삼각화”의 결과라 해석한다. 백인 헤게모니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주변화된 두 집단이 마주치고 갈등하게 된 것이지만, 이는 큰틀에서의 미국 인종주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흑인들에 대해 인종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한인들의 인종관도 불매운동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김은 『반흑인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에서는 자신의 기존 이론을 보다 보완하여 설명한다. 즉, 1800년대 후반에 완성된 미국의 인종질서는 y축의 우월-열등 지표와 x축의 내부자-외부자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월한 내부자의 정점에 백인이 있고 열등한 내부자의 저점에 흑인이 위치한다. 그러나 우월-열등 지표에서 백인과 흑인의 중간에 위치한 데다 내부자-외부자 지표에서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동양인들은 제 3의 지대를 점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바로 삼각형의 또 다른 극점이라는 것이다. 삼각화된 인종관계의 지평을 도입할 경우, 동양인들은 백인 및 흑인과 상대적으로 평가되어 백인보다는 열등하고 흑인보다는 우월하다고 여겨지지만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없고 미국인들이 미국인으로서 그들을 포용할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은 자신의 삼각화된 인종 이론이 동양인과 흑인의 관계성, 특히 반흑인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시인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하여 백인에 의해 총살당하거나 증오범죄에 노출되는 흑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흑인이 미국사회의 내부자로 받아들여지는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은 자신의 삼각화된 인종 이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흑인주의의 흐름 속에서 동양계 미국인의 인종적 위치는 흑인과의 상대적 비교 속에

서 고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pp.5-8)

킴은 『씹쓸한 과실』에서도 동양계 미국인 학자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종종 미국의 인종주의 투쟁에 있어 흑인 민권운동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백인들의 장단에 맞추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장태한도 196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모범 소수민족론이 1960년대에 가열차게 진행된 흑인 민권운동을 저지하는 데에 이용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미국 정부가 “아시아인들은 인종 차별을 군말 없이 이겨내며 성공하고 있는데 흑인들은 정부에게 요구만 한다는 논리로 백인[들이] 동양계와 다른 소수 민족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sup>8)</sup> 아이러니하게도 동양인 학자들은 물론이고 동양인들 대다수가 흑인과의 상대평가 속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흑인 민권운동을 저평가하고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흑인 인종주의를 확대시키는 데에 동참해 왔다는 것이다.

킴은 『반흑인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에서 이러한 동양인의 반흑인주의에 대한 경계에서 더 나아가, 흑인성이 백인 우월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포스트코로나 미국 사회에서 이전보다 더 큰 반감과 반발심을 일으키고 있음을 설파하며 이러한 반흑인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장태한도 미국의 반흑인주의에 대해 클레어 킴과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흑인 인구는 미국 인구의 12%에 지나지 않으나 미국 감옥 수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학 다닐 나이의 흑인 청년들 중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수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많다는 놀라운 통계는 미국 사법제도가

8) 장태한, 『아시아인 아메리칸 - 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책세상, 2006, 43쪽.

얼마나 인종적으로 불공평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sup>9)</sup> 동양인은 백인은 아니지만 ‘흑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흑인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교육을 받아 미국의 빈곤층을 형성하는 절대다수의 인종적 지위, 즉 흑인의 위치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흑인에게는 ‘피 한 방울의 법칙’마저도 적용되어 “흑인 피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신분이 확정”되어 “피부 색깔과는 상관없이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할머니, 증조 할머니의 선조들 중 한 명이 흑인이었으면 그들 자손 모두가 흑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미국 사회의 불문율”이라 한다.<sup>10)</sup> 그러나 “흑인인 아닌 다른 민족의 경우, 백인과의 결혼은 백인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의미”하여 한인 여성과 백인 남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들은 “백인같이 생겼으면 백인 행세를 할 수 있고 한국인같이 생겼으면 한국계 미국인의 신분을 가”져 흑인과 달리 “어느 정도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도 한다.<sup>11)</sup> 장태한은 흑인에게 결여된 이와 같은 선택의 자유가 “미국 주류 사회는 흑인의 동화를 원치 않는다는 무서운 암시”이자 “흑인들에게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단언한다.<sup>12)</sup>

김은 장태한보다도 급진적인 비교인종연구를 통해 반흑인주의가 미국의 포스트코로나 인종질서 속에서 동양인의 위치성을 재정립하고 있는 현실을 규명하려 한다. 따라서 김은 백인 우월주의와 반흑 인종주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백인과 흑인, 그 어느 쪽도 아니기에 미국 사회에서 나름의 이권을 쟁취할 수 있었던 동양인의 인종적 위치성을 ‘동양인-흑인 격차 (Asian-Black gap)’라 칭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반흑 인종주

9) 장태한(2012), 앞의 책, 105쪽.

10) 위의 책, 117쪽.

11) 위의 책, 119쪽.

12) 위의 책.

의역의 역사 속에서 동양계 미국인들에게 어떠한 비교우위를 부여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 3. 반흑 인종주의의 역사: 흑인과 대비되는 동양인의 위치

김은 『반흑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을 3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1800년대 중반 중국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초창기 동양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2부에서는 1900년대 초반 일본 이민자들이 유입되며 보다 공고하게 구축하기 시작한 동양인들의 중산층화의 궤적을, 3부에서는 1960년대에 제3세계 출신이라는 공통성으로 한 때 연대하기도 했던 흑인과 동양인들간에 벌어지기 시작한 격차과 갈등에 대해 탐색한다. 1부에서는 19세기 중후반 흑인 노예의 대체 인력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북미와 중남미의 영국 식민지 국가들에 유입된 중국인 노동자, 특히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쿨리(coolie)’라 불렸던 하층 노동자의 상황을 같은 시기 노예제에서 해방되었으나 고용도 안 되고 도리어 백인들에게 쫓기거나 린치를 당하며 살육당한 흑인들의 고난의 세월과 비교한다. 2부는 20세기 초 중국인 이민자들의 뒤를 이어 미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일본인 노동자들이 중국인들이 먼저 닦아놓은 터전 위에 안착하기 시작했으나,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적국이 된 일본과의 마찰로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중부 지역에 급하게 건설한 수용소에 강제로 집단 이주시켜 자행한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20세기 후반 부흥한 흑인 민권운동으로 흑인과 동양인 간의 인종적 연대가 추구되기도 했고 형성될 뻔도 했으나, 흑인보다 우대받는 동양인의 인종적 위치성으로 인해 결렬된 결속의 문제와 더불어 동양인들

이 도리어 반흑 인종주의에 동참하는 현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다. 김이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인종주의와 연관된 재판 사례 연구와 판결문 연구가 책 속에서 다수를 포함하지만 본절에서는 이론적 접근 위주로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 3-1. 중국인의 미국 이주와 흑인 아만인 담론

‘배제/포용’(Exclusion/Belonging)이라는 제목이 달린 1부에서는 중국인의 미국 이주를 다룬다. 중국인들은 미국의 남북전쟁 후 1852년 노예제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인건비를 주며 고용하기를 거부한 백인 고용주들이 흑인의 대체인력으로 모집해 미국으로, 특히 캘리포니아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들과 더불어 캐나다와 카리브해 연안의 영국 식민지 국가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흑인 노예를 대체한 노동인력인 중국인 머슴, 쿨리(coolie)가 사회의 하층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세기 민족연구(ethnic studies)는 이미 “중국인은 유럽인보다는 열등하지만 아프리카인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진리(truism)”로 삼고 있었다.(p.46) 중국인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아시아의 제국이었던 중국의, 그리고 중국 황제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에게 문명국의 이주민으로 대우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쿨리나 중국계 미국이주민은 소작농 출신의 하층민들이 대다수라 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노동 계약서의 내용마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하인처럼 취급되고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며 천대받기는 했다. 그러나 이러한 착취적 계약에 실제로 중국 황제가 개입해 해외에서 중국인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구 열강들과 계약을 체결한 결과 쿠바에서의 쿨리무역은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내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압박으로 노동계약 조건은 점점 개선될 수 있었다. 그

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에게는 돌아갈 나라와 문명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미국 사회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포용되지 못하고 배제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흑인보다는 우월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월하기 때문에 배제되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p. 55) 흑인들은 아무리 최악의 취급을 당해도 돌아갈 문명국이 없고 그들을 보호해줄 군주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착취당하고 차별당했다 해도 미국 사회에 포용되는 것처럼 보였다.

같은 시기 미국 사회에 흡수되는 것처럼 보였던, 노예제로부터 해방되거나 노예가 아니었던 흑인들은 이후에도 노예처럼 취급되며 탄압받고 착취당했다. 특히 노예제 시기부터 존재했던 ‘린칭(lynching)’은 미국 사회가 흑인 남성들을 백인 여성을 강간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여 감시하고 학대한 악습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백인 남성들은 흑인 남성을 함께 사냥하고 죽이며 서로간의 연대의식을 확인했고, 이것을 공개사형으로 전환하여 볼거리로 만들고 이를 사진 기록으로 남겨 ‘린칭 사진’이라는 장르까지 만들어냈다. 흑인은 지능이 낮고 야만적이기 때문에 문명이 없으므로 이러한 수난을 당해 마땅하고 이에 대한 죄의식을 느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는 “정부의 개념”이 존재했고, 그들이 중국의 제국주의적 목표의 수행자였기 때문에 정확히 그 이유로 위험”하게 여겨졌다. (p. 56) 그럼에도 그들은 흑인이 아니라는 이점으로 세대를 거치며 고등교육을 받고 거주환경과 권리행사의 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합법적 이민자건 중남미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밀입국한 이민자건, 중국인들은 “전지구적 반흑인 순환고리를 따라 ‘깜둥이 노동(nigger work)’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흡수하고 비흑인성을 터득”하며 미국사회에 안착할 수 있었다. (p.110) 따라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중국인들과 중국계 미국인들의 흑인에 대한 인식은 서구의 그것과 동질화

되어 급기야 중국인들은 ‘한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자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강조나 교육은 중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해외에서 이 두 나라보다 덜 알려져 있었던 한국에서도마저도 식지 않고 지속되는 움직임이라 놀라운 일은 아니다. 또한 스스로의 민족성을 자부하며 흑인을 업신여기고 ‘검둥이’나 ‘깜둥이’라 비하하는 한국인들도 아직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 3-2. 일본인의 미국 이주와 일본 제국주의 및 흑인 좌파운동

김은 책의 2부를 ‘배척/입문’(Ostracism/Initiation)이라 제명하고 일 본계 미국인의 이주사를 추적한다. 김은 일본계 미국인들의 미국사회에서의 성공도 백인 우월주의와 반흑인주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널리 알려져 있듯, 일본의 서구문명 도입과 문호개방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도쿄만에 흑선 네 척을 이끌고 들어가 요구하여 이루어진 1858년의 미일수호통상조약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조약이 체결된 후 미국 함대 포화탄호 안에서 이루어진 미국 대표들을 환대하는 자리에서 일본인들은 흑인 분장을 하고 에티오피아 원주민을 흉내내는 블랙페이스 민스트럴을 했다고 한다. 나름대로는 당시 서구사회에서 유행하던 블랙페이스 민스트럴을 통해 국제주의에 동조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공연이었겠지만, 일본인들이 얼굴을 검게 칠하고 에티오피아인들을 과장되게 흉내내며 그 자리에 있는 백인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분위기 자체가 은연중에 흑인들을 업신여기고 비하하는 흑인공포증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다. 블랙페이스 공연은 백인과 동양인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택되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이 흑인성에 대한 공통된 혐오를 바탕으로 백인들의 침략성을 용서하도록 유도”된 결과이기도 하다.(p.141) 미국과



의 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인들도 미국으로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문명국에서 왔고 흑인이 아니며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로 곧 경제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창기 일본인 이주자 중의 한 명인 타카오 오자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백인성'을 강조하며 이민 신청을 했다 거절된 판례는 21세기에도 유효한 미국의 동양인에 대한 인종 역할을 최초로 확인한 자리였다 할 수 있다. 물론 오자와는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그의 판례는 20세기 초 미국 사회의 반흑인주의가 일본인을 어느 정도의 신분상승은 성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백인성(whiteness)이라는 요새의 문턱에 도달하게 할 정도로 강력했지만, 그를 요새 안으로 들일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음”을 드러낸다. (p.150) 또한 미국은 일본인들이 “경제적 경쟁력과 인구학적 과밀화를 통해 백인의 사회와 문화를 파괴”할 가능성을 우려했음에도, 그들이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세기 초반 서구 열강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제국으로 성장하고 어쩌면 인종적으로 “백인보다 우월”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도 했다. (p. 150, p. 156) 일본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확장은 당대의 흑인 민권운동가들에게 유색인종의 희망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찰들러 오웬과 같은 흑인 급진주의자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진압하며, 불운한 중국을 마구잡이로 공격”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W.E.B 두보이스와 같은 흑인 지식인들은 일본의 식민주의적 확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937년 만주사변을 옹호하기까지 했다.(p.163) 백인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제 3 세계의 연대를 갈망했던 흑인 국제주의자들은 일본이 “서구 열강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이 될 것을 크게 기대했으나, 그 중 일부는 일본이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전지구적 비판의 중심점이 되기보다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에 더 주력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

다. (p.164)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미국이 일본을 적국으로 인지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지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던 흑인 병사를 징집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백인과는 별개로 편성된 흑인만으로 구성된 군단은 별개의 훈련을 받고 별도로 전투 장소에 배치되었고, 스스로를 무국적자라 생각했던 흑인 젊은이들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 미국 사회에 포용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으나, 국가의 보호를 받은 적이 없었던 또 다른 흑인 젊은이들은 징집을 거부하여 수감되기도 했다. 이처럼 2차대전은 “별개의 인종 집단들, 즉 독일과 이탈리아 등 미국의 적국 출신의 유럽인 포로들,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 격리자들과 흑인 병사 및 거주자들을 미국 남부 지역에 분리하여 감금하며 이들을 근접 지역에 한데 모아 놓”기도 했다. (p.179) 그러나 백인만큼의 진급이 불가능하고 전투 공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흑인 병사들과 달리, 스스로 미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참전한 일본계 병사들은 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과 싸우며 그 공헌을 인정받기도 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미국에 반공주의가 넘쳐흐르기 시작하며 월터 화이트와 같은 몇몇 흑인 좌파 운동가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부정하고 반공 자유주의 진영으로 전향하기도 했다. “반공주의는 흑인성을 볼셰비키의 위협과 결부시키고 반흑인주의에 대한 투쟁을 증대하게 좌절시키며 흑인성의 위협을 과장”했기 때문이다. (p.214)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은 결국 반제국주의와 반인종주의를 위한 제 3세계의 연대와 국제주의를 외치던 좌파 “흑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p.215)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점차 대도시의 백인 인구를 교외로 이동시켜 도심의 흑인지역을 분리시키고 계도화함은 물론 그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은행 대출이나 담보 제공까지도 차단하기에 이른

다. 그리고 도심에 거주하는 흑인들로부터 백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검둥이 제거’(Negro removal)’에 가까운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여 도시 다운타운의 상업 및 오락 지구와 가까운 흑인 슬럼을 없애버리고, 도심의 흑인 거주자들을 주거공간이 뿔뿔이 밀집된 흑인 지역으로 이동시켜 버렸다. 1970년대에 이르면 20년간의 도시 재개발로 인해 미국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의 공공 주택사업은 사회 전반으로부터 고도로 분리되고 극단의 사회적 고립으로 특징지어지는 흑인 거주지화로 변질”되어 있었다고 한다. (p.221) 흑인들과 달리 동양계 미국인들은 백인 동네에서도 환영받았고 취업도 자유로워 계층 이동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냉전을 계기로” 외부적으로는 소련 등으로부터 인종차별 등을 빌미로 비판받고 내부적으로는 거세지는 흑인 민권운동으로 슬렁이는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백인들이 마음을 고쳐먹기로 작정한 것이 컸다고 분석한다고 한다. (p.228) 흑인과 함께 동양인까지 별도의 거주지역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재정적 타격도 너무 큰 데다, 겉으로 ‘반인종주의’를 전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여 미국은 동양인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킴은 냉전뿐 아니라 “구조적 반흑인주의를 재생산하는 기제에 의해 동양계 미국인들이 2차대전 이후 신분상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석한다. (p.231) 따라서 “흑인 거주지의 계도화와 일본계 미국인의 사회이동은 별개의, 독립된 과정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겹쳐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p.231) 킴은 백인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흑인이 아니었던 일본계 미국인들이 ‘모범 소수민족’으로 치하받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근간은 “백여년이 넘게 지속된 이러한 반흑인 질서의 구조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p.239)

### 3-3. 동양계 미국인의 민권운동과 반흑인주의

3부는 ‘결속/부인’(Solidarity/Disavowal)이라는 제목 하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개된 동양계 미국인들의 민권운동이 이보다 유서깊은 흑인 민권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추적한다. 동양계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의 소수자로서 각각의 민족성, 즉 중국성, 일본성, 한국성 등을 부각시키기보다 모두가 같은 동양인이라는 인식 하에서 민권운동을 개진했고 블랙팬더당 등의 흑인 해방투쟁 세력은 물론이고 멕시코계 미국인이나 미국 원주민과도 연대하여 “전지구적 백인 우월주의와 식민주의”와 맞서 싸우고자 했다. (pp.243-244) 그러나 김은 이 과정에서 동양계 미국인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비판적 성과를 거뒀으나 이것이 “반흑인주의에 대해 침묵하며 이루어진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고발, 즉 절반의 비판”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p.244) 흑인이 아님으로 인해 동양계 미국인들이 얻은 유리한 고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으며, 이와 같은 절반의 성공이 남겨둔 절반의 퍼즐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되는 흑인과 동양인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갈등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양계 미국인들의 성취로 꼽을 수 있는 사건은 1988년에 법제화된 ‘시민 자유 법령’ (the Civil Liberties Act)과 2021년 법제화된 ‘코로나 19 증오범죄 법령’ (the Covid-19 Hate Crime Act)의 시행이다. 전자는 2차대전 중 강제수용된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결정된 조치이고, 후자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동양인들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법제화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두 법령의 법제화는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막대한 조력”과 흑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배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은 “흑인성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동양계 미국인들의 출세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했고, 이

는 미국이 신분 상승이 가능한 국가라는 알리바이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분석한다. (p.245) 노예제를 통해 인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무보수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하며 살아온 흑인들에게는 어떠한 법적 보상이나 배상도 이루어져 온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진정 반흑인주의적 법령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킴은 중국계와 일본계 미국인들 뿐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에게도 주어지는 흑인에 대한 비교우위에 대해 논하며, 이를 ‘동양인-흑인 격차’(Asian-Black gap)의 일부라 해석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점을 개업해 흑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부유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1920년대에 미시시피강 삼각주 지역에서 중국계 이민자들이 흑인 거주자들을 상대로 상점을 운영하며 백인의 신분에 근접할 정도로 성공을 일군 사례와도 유사하다.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차단된 흑인들과 달리 동양인들은 흑인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업에 종사하며 사회적 이동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동양인-흑인 격차’라는 것이다. 이 중 특히 한흑격차의 일례로 킴은 1991년의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 상점에 대한 흑인 불매운동을 촉발한 사건 중 하나인 한인 소상공인 두순자의 흑인소녀 라타샤 할린스의 총살 사건을 지목한다. 할린스가 오렌지 주스를 도둑질한다고 생각한 두순자는 총을 뽑아들었고 소녀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녀의 손에는 주스값인 지폐가 쥐어져 있었다고 한다. 재판기록을 보면 흑인 거주지에서 흑인혐오에 시달리던 한인 여성이 무고한 흑인 소녀를 살해한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두순자는 수감되지 않았다. 그녀는 백인여성 판사로부터 정당방위를 근거로 “10년의 집행 유예, 5년의 보호관찰,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판결받았다. (p.286) 분노한 흑인들은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인상점 불매운동을 벌였고,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

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는 곧 폭동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많은 한인들이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가장 큰 피해자로 자신들을 꼽고 있고, 물론 주로 한인 상점들이 약탈당한 만큼 재정적 피해가 막대하기는 했으나, 흑인들과 라티노들은 수백명이 사망한 데 비해, 폭동으로 목숨을 잃은 한인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마저도 타인종이나 타민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인의 오발로 인해 한인이 사망한 경우이고,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사망자의 어머니는 아직도 흑인들을 탓하고 있다고 한다. 김은 두순자 사건과 함께 한국 텔레비전에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블랙페이스 분장을 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등장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언급했던 일본인들의 블랙페이스 민스트럴처럼 한국인들의 블랙페이스 공연도 흑인혐오와 반흑인주의를 시각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반흑인주의는 인식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김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나 경찰의 흑인 무력진압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이는 한 백인 경찰뿐 아니라 그들에게 조력한 동양계 경찰의 존재도 있었음을 지적하며 동양인들이 반흑인주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김은 ‘코로나 19 증오범죄 법령’과 같은 동양계 미국인들의 성취에 대해 “헛된 승리(hollow victory)”라 일침을 놓는다. (p.357)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국인 인종주의 발언으로 촉발된 반동양인 인종주의로 인해 실제 목숨을 잃거나 치명상을 입은 동양인은 없기 때문이다. 흑인들이 경찰의 폭력으로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한 것과 비교하면 동양인에 대한 미국 주류사회의 태도는 인종주의적이라 보기조차 민망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은 2021년 1월 6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하자 이에 불복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의회

건물을 점령한 사건이야말로 “백인 민족주의 부활의 표현일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흑인혐오의 표현, 즉 8년간의 흑인 대통령 재임에 대한 집단적 히스테리의 물결”이라 해석한다. (p.358)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파 백인들과 우파 동양계 미국인들의 점점 더 깊어지는 결속”의 결과라는 것이다. (p.359) 그러나 김은 진보적 동양인들도 다수 있는 만큼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보다 많은 동양인들이 ‘구조적 반흑인주의’를 인식하여 그것을 재강화하는 데에 일조하기 보다 “동양인이 모범 소수민족이라는 평가가 단순히 신화이거나 구성된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흑인 사회에서 동양계 미국인이 흑인보다 낫다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편애가 깊이 뿌리박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미국의 인종 자본주의(racial capitalism)에 저항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 4. 나가며

클레어 김의 신간, 『반흑인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은 인종문제, 특히 동양인 문제에 대해 방대하면서도 참신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는 흥미로운 저서이다. 김은 첫 번째 저서 『쏟아진 과실』에서부터 흑인과 동양인 간의 인종갈등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흑인 민권운동의 역사를 한국계 미국인의 이주사와 접목시켜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 인종 비교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두 번째 저서 『위험한 횡단들』에서 김은 랍스터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요리하는 중국식 조리법이 미국 내에서 동물학대로 신고 되어 이루어진 법정 자료집들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종과 비인간종 생물종의 관계를 폭넓게 고찰하기도 했다. 세 번째 저서인 『반흑인 세계의 동양계 미국인』은 이러한 김의 연구의 지평이 한국계 미국인과 중국계 미국인 뿐

아니라 일본계 미국인 및 흑인탄압의 역사와의 비교연구로까지 확대되어 동양계 미국인 전반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김의 세 권의 책을 접하며 느끼는 것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 동양인 뿐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의 범주가 너무나도 넓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김은 주로 동아시아계 이주민에 국한하여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연구를 하는데, 매번 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료수집과 문헌자료 분석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럽기 그지 없어 후배 연구자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미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김의 연구뿐 아니라 동양계 미국인에 대한 다른 연구들을 접할 때마다 동양인을 포함한 다양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함께 수행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마음 한 켠에 언제나 자리잡는다. 인도계 미국인들도 그들을 (남)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정의하고,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에 원류를 둔 동남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존재도 크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계 미국인과 동(북)아시아계 미국인 사이의 격차야 아주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도계 미국인들이나 중동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물론 1980년대까지 코카서스 인종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이력이 있는 인도인들이지만, 스스로를 (남)아시아인으로 불러달라며 미국과 전세계에 요구해 “갑자기 동양계에 포함된 사례”이기도 하다.<sup>13)</sup> 언어와 경험의 제한으로 인해 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아시아인 비교연구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언젠가 이러한 간극이 메워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13) 장태한(2012), 앞의 책, 11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Claire Jean Kim, *Asian Americans in an Anti-Black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 2. 논문과 단행본

장태한, 『아시안 아메리칸 - 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책세상, 2006.

장태한, 『미국의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장태한·캐롤 박, 『미주한인사』, 장태한·윤지아 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Kim, Claire Jean Kim. "The Racial Triangulation of Asian Americans." *Politics & Society*, Vol. 27, No. 1 (Mar 1999), pp.105-138.

Kim, Claire Jean. *Bitter Fruit: The Politics of Black-Korean Conflict in New York C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Min, Pyoung Gap.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ark, Kyeyoung. *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Abstract

The Position of Asians in the Racial Order of the 21st Century:  
A Comparative Race Study in Claire Jean Kim's  
*Asian-Americans in an Anti-Black World*

Lee, Yun-J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ition of East Asians in the racial order of the 21st century by scrutinizing Claire Jean Kim's 2023 book, *Asian-Americans in Anti-Black World*. Kim explores the positionality of Asians in the racial order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f the globe under the impact of escalating anti-Black racism, exacerbated in the United States both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lthough there have been widespread news reports of a surge in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U.S. due to COVID-19, which originated from Wuhan, China, relatively few Asians have suffered to the extent to lose their lives. In stark contrast, anti-Black racism, rooted in slavery from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and persisting into the 21st century, continues to infringe upon the human rights and claim the lives of many Black individuals. Kim thus contends that the comparative advantages enjoyed by Asian-Americans relative to Blacks have been constructed by Whites, and this positionality of Asian Americans needs to be examined vis-a-vis that of Whites and Black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In other words,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Asian-Americans to Blacks, which are also comparable to White's absolute advantages, stems from not being black-skinned. In her latest book, Kim accordingly undertakes extensive and exhaustive research on the immigration historie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mericans in comparisons with Whites and Blacks, particularly in criticizing anti-Black racism in the United States by comprehensively referencing

theories, historical materials, court records, and textual sources of arts and culture. Closely reading Kim's arguments and discussions made by that research, this study critically delves into how we can apply and engage with the arguments and discussions by connecting them to Korean and East Asian societies.

(Keywords: Claire Jean Kim, Asian-Americans in Anti-Black World, racism, racial order, Black, anti-Blackness, Asian, hate crimes, comparative advantage, comparative race studies)

■ 논문투고일 : 2024년 1월 12일

■ 논문심사일 : 2024년 2월 5일

■ 수정완료일 : 2024년 2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15일